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6년 2월 조사 -

동일본대지진 이래 첫 2개월 연속 전지역 악화

~경기반락의 회피를 위한 아베노믹스의 강화를 기대~

(조사대상 2만3,189사, 유효회답 1만497사, 회답률 45.3%,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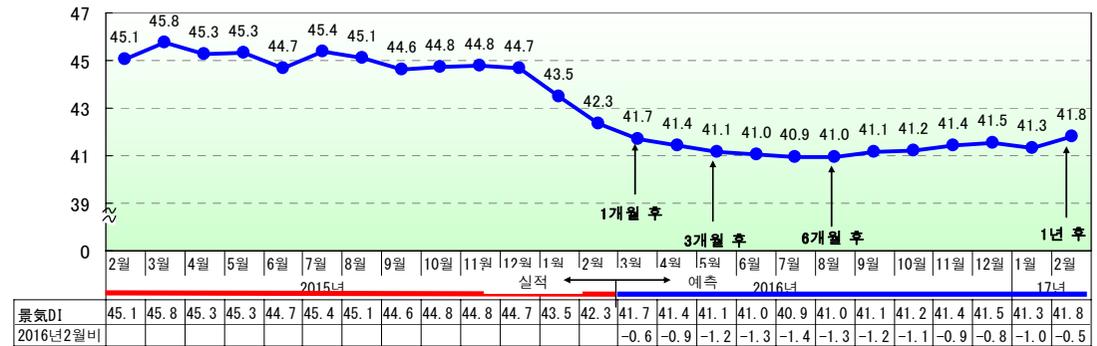
- 2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42.3이 되어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건설수요의 침체나 강재생산의 대폭악화에 더하여 마이너스금리의 실시가 금융기관의 체감경기를 크게 악화시켰다. 국내경기는 전국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의 경기도 낮은 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지나, 경기반락을 회피하기 위한 아베노믹스의 강화가 기대된다.
- 업계별로는 『금융』 『건설』 『제조』 『소매』 등 8개 업계가 악화, 『농·임·수산』 과 『부동산』 의 2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제조』 에서는 건설수요나 해외수요의 침체가 영향을 끼쳐 강재가격이 었가로 책정되는 등 시장경기가 악화되었다. 또한 청과물용 박스의 출하감소나 식품재료의 가격상승에 의한 전체적인 코스트증가도 악화요인이 되었다.
- 지역별로는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2011년 4월 이래, 4년 10개월 만에 2개월 연속으로 전국 10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6개 지역에서 1포인트 이상 악화되어 전국적으로 경기가 크게 후퇴하였다. 특히 『토카이』 는 국내차량공장 전 라인의 가동정지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 내 4개 현이 모두 악화되었다.

<2016년 2월의 동향 : 악화되고 있다>

2016년 2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42.3이 되어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2월은 1월 말에 도입된 일본은행에 의한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실시된 가운데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 예상에 동반하여 장기금리의 저하, 예금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하 등 여러 영향이 드러났다. 또한 공공공사나 맨션착공호수의 감소에 의한 건설수요의 침체, 강재생산의 감소가 장기화되어 관련된 강재생산의 대폭 악화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국내차량 제조라인의 정지가 『토카이』 경제의 악화 요인이 된 이외에 7개월 연속 정상을 차지하였던 『시코쿠』 에서 경기의 정체감이 강해지는 등 동일본대지진 이후 4년 10개월만에 전국 10개 지역이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전국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향후의 전망 : 낮은 수준으로 추이>

해외경제에서는 중국의 경기감속이나 원유가격의 하락에 의한 자원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경제의 탄력이 약하여 이로 인한 금리 인상의 지연이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하향 리스크 고조는 금융시장의 혼란 등을 통하여 기업이나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내경제에서는 공공공사의 감소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가운데 맨션 가격의 급등이나 기업의 설비투자억 저하는 경기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상승 압력의 약화와 함께하는 원유가격의 하락은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을 늦추는 요인이 되겠다. 향후의 경기는 낮은 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반락을 회피하기 위한 아베노믹스의 강화가 기대된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악화, 건설수요의 침체로 강제생산이 대폭악화

• 『금융』 『건설』 『제조』 『소매』 등 8개 업계가 악화, 『농·임·수산』 과 『부동산』 의 2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마이너스 금리가 실시되어 금융기관의 체감경기에 영향을 준 이외에 건설수요의 침체로 관련된 강제생산이 크게 악화되었다.

• 『금융』 (44.3)…전월 대비 1.0포인트 감소.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환율의 변동이나 증가하락 이외에 2월 16일부터 시작된 일본은행에 의한 마이너스금리의 실시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많았다. 마이너스금리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수익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금리가 저하된 한편, 예금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인하되었으며 일부상품의 모집이 정지되는 등 여러 영향이 나타났다.

• 『건설』 (45.9)…동 2.0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인력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하여 코스트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공사의 감소가 기업업적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건축공사는 개보수(改補修)공사의 발주도 신통치 않으며 맨션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에 신중하게 되어 착공호수도 감소하였고 부수적인 기계기구의 설치공사나 일반전기공사 등이 악화되었다. 북일본의 강설지역에서는 난동(暖冬)으로 제설업무의 가동일수가 적어 토목공사의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도입으로 설비투자를 검토하던 고객이 대출금리의 저하를 기대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도 약한 하락세를 보여 『건설』 은 11개월 연속으로 50을 하회하였다.

• 『제조』 (41.2)…동 1.0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철강·비철·광업」 (38.8, 동 2.3포인트 감소)은 건설수요나 해외수요의 침체가 영향을 끼쳐 특수강이나 H형강 등의 시황이 악화, 2년 8개월만에 30대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펄프·종이·종이가공품」 (36.8, 3.5포인트 감소)은 1월의 대설에 의하여 청과물용 출하가 감소한 박스제조나 인쇄·정보용지 등 사무용 종이제품제조가 악화되었다. 또한 과자·된장의 원료가 되는 쌀의 가격이 전년 대비 2배로 상승한 이외에 글이나 설탕의 도매가가 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코스트증가가 영향을 끼친 『음식료품·사료제조』 (43.2, 동 1.0포인트 감소) 등 『제조』 는 12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 『소매』 (39.5)…동 1.5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되어 2015년 1월 이래 13개월만에 30대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가전·정보기기 소매」 (39.2, 4.6포인트 감소)는 스마트폰의 출하대수가 감소된 가운데 2월에 본체가격의 실질적인 인상이 이루어져 정보가전기기가 대폭으로 악화되었다. 「자동차·동 부품 소매」 (37.9, 동 2.1포인트 감소)는 신차판매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고차의 판매대수도 부진하여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가계의 절약지향이 강하여 부인·아동복이나 신발 등이 저조한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1.6, 동 3.2포인트 감소) 등 『소매』 는 9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15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전월비		
농·임·수산	40.0	44.0	43.7	45.0	41.9	42.9	44.7	44.7	44.6	45.2	46.4	43.6	44.5	0.9		
금융	44.7	48.0	48.1	47.4	49.2	48.1	46.5	46.3	47.3	46.6	46.3	45.3	44.3	▲ 1.0		
건설	50.4	50.8	49.3	48.6	47.7	48.6	48.8	49.1	49.5	49.6	49.3	47.9	45.9	▲ 2.0		
부동산	47.2	48.8	48.8	49.6	49.1	49.8	48.4	48.7	48.7	48.9	48.4	47.1	48.0	0.9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39.8	43.1	42.1	44.3	43.1	43.4	43.0	43.6	44.3	44.5	44.1	44.2	43.2	▲ 1.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9.7	37.6	40.2	41.7	39.4	39.4	40.2	38.8	39.8	39.4	39.3	36.4	37.6	1.2	
	건축·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41.9	42.1	40.3	40.9	40.3	41.2	41.2	40.9	40.2	38.9	40.7	38.5	38.0	▲ 0.5	
	펄프·종이·종이가공제품제조	37.3	39.3	39.8	40.0	39.0	39.7	42.0	40.8	41.1	42.4	41.7	40.3	36.8	▲ 3.5	
	화학·인쇄	33.5	34.1	34.6	34.1	33.5	33.7	34.9	34.8	34.8	34.6	34.7	34.0	34.6	0.6	
	화학제품	44.5	44.6	44.1	44.4	43.9	44.7	45.3	44.4	44.4	44.9	45.4	44.3	42.8	▲ 1.5	
	철강·비철·광업	46.8	45.2	43.9	43.0	42.9	43.6	42.8	41.7	41.4	41.8	41.5	41.1	38.8	▲ 2.3	
	기계제조	51.5	52.6	52.5	51.6	51.3	51.9	50.3	47.3	47.9	47.3	48.6	46.0	45.5	▲ 0.5	
	전기기계제조	48.4	49.7	47.7	47.3	47.4	47.4	44.8	45.2	45.2	45.2	44.9	43.0	42.8	▲ 0.2	
	수송용기계·기구제조	50.3	50.4	51.1	47.8	49.7	50.9	50.8	48.3	46.3	47.0	46.2	45.7	44.6	▲ 1.1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8.9	49.2	47.8	49.8	49.4	50.4	51.2	47.9	48.6	47.9	46.1	46.2	43.1	▲ 3.1	
	기타 제조	38.7	38.7	37.1	40.7	37.8	39.2	40.0	39.6	40.0	39.6	39.4	39.1	39.1	▲ 0.3	
	전체	44.6	45.1	44.4	44.5	44.0	44.6	44.2	43.2	43.3	43.3	43.5	42.2	41.2	▲ 1.0	
도매	식품료품도매	39.7	40.6	42.6	42.9	43.0	44.1	42.7	43.6	43.0	43.1	42.6	41.9	40.9	▲ 1.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2.2	33.3	35.6	37.0	34.8	34.4	34.7	36.5	37.8	34.4	34.4	33.5	32.7	▲ 0.8	
	건축·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40.5	40.2	38.2	38.7	38.1	39.8	39.7	39.5	41.3	41.5	41.8	40.5	39.1	▲ 1.4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5.1	37.7	37.3	38.1	34.5	37.1	36.5	36.8	36.8	37.4	37.2	38.1	37.4	▲ 0.7	
	화학도매	41.2	41.8	42.5	43.0	43.1	43.9	42.6	42.3	42.5	42.8	43.2	40.8	39.2	▲ 1.6	
	생활자원도매	38.5	39.3	39.7	42.3	40.1	35.8	36.0	25.8	29.9	26.7	32.1	25.6	28.4	2.8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43.5	43.2	41.2	40.3	39.3	40.4	40.3	38.5	38.8	39.4	37.7	36.4	35.8	▲ 0.6	
	기계·기구도매	46.0	47.3	46.7	46.3	45.1	45.6	45.3	43.6	43.6	43.4	43.6	42.6	41.2	▲ 1.4	
	기타 도매	38.5	40.7	40.9	41.8	42.0	42.4	41.4	40.8	41.0	41.1	41.1	39.9	39.0	▲ 0.9	
	전체	41.5	42.5	42.3	42.5	41.7	42.5	41.9	41.2	41.5	41.4	41.4	40.1	39.0	▲ 1.1	
	소매	식품료품도매	38.2	39.4	39.3	41.6	42.7	45.0	44.0	44.5	44.6	41.4	43.2	39.9	40.4	0.5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2.3	34.8	38.0	40.2	37.0	38.6	38.7	36.9	40.1	36.8	32.1	34.8	31.6	▲ 3.2
		의약품·임용약품소매	45.3	46.0	48.1	48.0	48.6	49.3	48.7	46.7	48.6	50.0	49.4	45.3	45.4	0.1
가구류소매		33.3	27.8	35.0	40.0	43.3	41.7	41.7	42.9	42.9	42.9	47.2	42.9	40.5	▲ 2.4	
가전·정보기기소매		39.0	43.2	38.4	41.5	40.6	38.9	38.3	44.6	39.6	38.7	40.7	43.8	39.2	▲ 4.6	
자동차·동 부품소매		40.7	38.8	36.5	39.9	37.2	38.3	38.7	38.8	39.9	38.2	37.9	40.0	37.9	▲ 2.1	
전문상품소매		43.7	42.3	39.4	40.5	38.0	39.9	41.6	40.7	39.2	39.8	38.4	40.4	39.2	▲ 1.2	
각종상품소매		41.0	40.6	47.1	49.7	48.1	48.8	49.0	47.3	46.5	47.3	43.8	45.0	43.7	▲ 1.3	
기타 소매		36.7	38.9	41.7	36.1	43.3	35.7	44.4	44.4	36.1	38.9	43.3	44.4	41.7	▲ 2.7	
전체		40.5	40.5	40.2	42.1	40.7	41.9	42.4	42.2	41.6	40.9	40.2	41.0	39.5	▲ 1.5	
운수·창고		44.8	44.9	44.8	44.8	42.6	44.4	44.9	45.1	44.7	45.4	45.3	43.2	41.9	▲ 1.3	
서비스		음식점	45.2	49.2	50.0	49.6	48.3	47.4	51.3	45.3	49.2	46.2	44.4	47.1	42.1	▲ 5.0
		전기통신	53.7	48.3	54.2	53.7	50.0	47.0	53.0	59.3	57.6	53.0	51.5	58.3	54.2	▲ 4.1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0.0	48.3	55.0	53.7	53.0	50.0	51.9	56.7	55.0	55.0	55.0	52.4	53.7	1.3	
	리스·임대	50.0	49.3	49.6	47.9	47.9	48.7	49.9	48.0	48.0	49.2	49.7	48.1	46.2	▲ 1.9	
	호텔·호텔	49.5	48.6	51.4	53.1	54.2	59.2	59.0	58.3	61.4	59.1	55.4	56.9	54.7	▲ 2.2	
	오락서비스	36.7	40.6	38.7	40.2	37.9	37.3	38.0	37.9	38.0	38.0	38.6	39.1	37.3	▲ 1.8	
	방송	40.0	45.6	47.9	45.6	46.1	49.1	46.1	41.7	45.1	46.9	47.8	48.3	46.9	3.1	
	엔터테인먼트·설비·검사	46.9	47.2	47.8	48.1	47.4	47.6	47.4	46.0	46.1	47.1	46.4	44.8	43.8	▲ 1.0	
	광고관련	39.3	42.1	42.2	41.1	41.0	39.8	40.7	40.8	40.7	40.3	40.3	39.2	37.2	▲ 2.0	
	정보서비스	54.6	56.3	56.3	55.3	55.4	56.4	55.8	55.5	56.0	54.9	54.9	55.2	53.3	▲ 1.9	
	인재파견·소개	57.5	56.7	55.5	56.2	56.3	54.4	55.0	54.2	54.7	52.5	53.1	50.9	52.7	1.8	
	전문서비스	51.4	53.0	51.0	51.7	50.9	52.0	51.4	51.5	49.0	50.3	52.1	49.1	48.9	▲ 0.2	
	의료·복지·보건위생	45.7	45.3	46.1	46.3	43.3	45.3	43.6	42.8	42.3	44.1	42.2	39.9	39.2	▲ 0.7	
교육 서비스	40.2	39.5	41.2	41.1	44.4	40.6	44.1	42.1	45.0	50.8	46.7	46.3	46.8	0.5		
기타 서비스	48.1	47.2	46.1	46.8	49.5	50.9	48.5	49.3	49.2	50.1	49.0	45.9	47.5	1.6		
전체	49.2	50.3	50.1	49.9	49.7	50.4	50.1	49.6	49.6	49.6	49.6	48.4	47.4	▲ 1.0		
기타	41.7	42.0	43.2	40.2	41.9	42.6	40.7	41.4	42.3	41.9	43.8	40.9	39.4	▲ 1.5		
격차 (10개업종별 『기타』 제외)	10.4	10.3	9.9	7.8	9.0	8.5	8.2	8.4	8.1	8.7	9.4	8.3	9.0			
중국진출	47.4	47.8	48.2	47.9	47.0	47.5	46.9	45.6	45.6	44.8	44.7	43.5	42.0	▲ 1.5		
태양광발전	47.0	48.0	46.0	47.2	44.5	47.8	46.5	45.0	44.7	44.3	46.0	43.1	43.4	0.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우려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 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 등을 포함함.

규모별 : 2개월 연속해서 전 규모 악화

· 「대기업」이 46.0(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 「중소기업」이 41.3(동 1.2포인트 감소), 「소규모 기업」이 40.3(동 1.5포인트 감소)이 되어 모든 규모에서 1포인트 이상 악화되었다. 「대기업」은 가솔린 등의 저가격 경쟁에 괴로워하는 전문상품 소매 등 『소매』를 포함한 7개 업계가 악화되었으며, 또한 「중소기업」은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공사의 침체에 영향을 받은 『건설』이나 하주(荷主)의 생산조정 등이 영향을 끼친 『운수·창고』 등 8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15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전월비
대기업	48.0	48.6	48.9	49.2	48.4	48.8	48.9	48.2	48.4	48.4	47.9	47.1	46.0	▲ 1.1
중소기업	44.2	45.0	44.3	44.3	43.6	44.5	44.1	43.6	43.7	43.7	43.8	42.5	41.3	▲ 1.2
(그 중, 소규모기업)	43.4	44.3	43.1	43.2	43.1	43.4	43.2	43.2	43.2	43.1	43.3	41.8	40.3	▲ 1.5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8	3.6	4.6	4.9	4.8	4.3	4.8	4.6	4.7	4.7	4.1	4.6	4.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의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의 부분은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동일본대지진 이래 2개월 연속으로 전 10개 지역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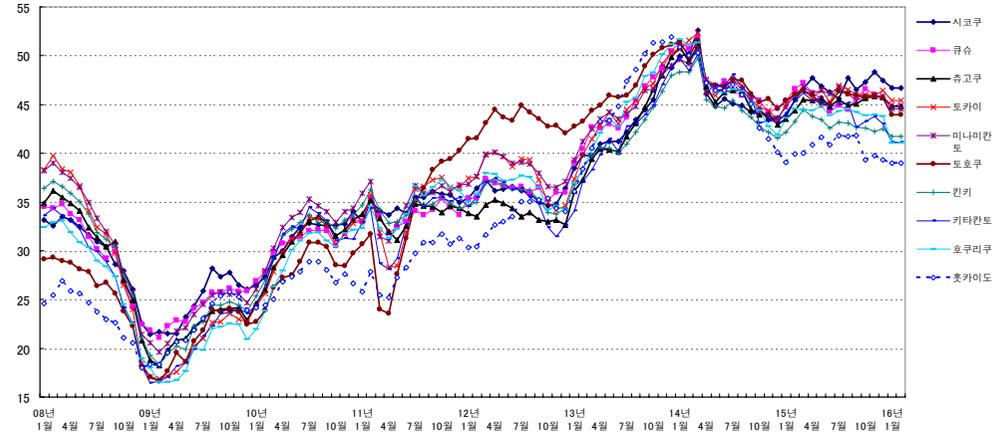
· 2개월 연속하여 10개 지역 모두가 악화되었다. 2개월 연속으로 전국 10개 지역이 악화된 것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과 4월 이래의 4년 10개월 만이다. 1포인트 이상 악화된 것은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으로 전월에 이어 전국적으로 경기가 크게 후퇴하였다.

· 「**도카이**」(43.6)…전월 대비 1.8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토요타자동차가 국내차량공장 전 라인의 가동을 6일간 정지한 영향이 크며 「아이치」(2.1포인트 감소)를 포함한 4개 현 모두가 악화되는 등 지역 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한 업종별로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4.3포인트 감소)나 「철강·비철·광업」(3.6포인트 감소) 등의 『제조』(1.9포인트 감소) 이외에 화물량 감소나 인력부족으로 괴로워하는 『운수·창고』(4.8포인트 감소)가 크게 후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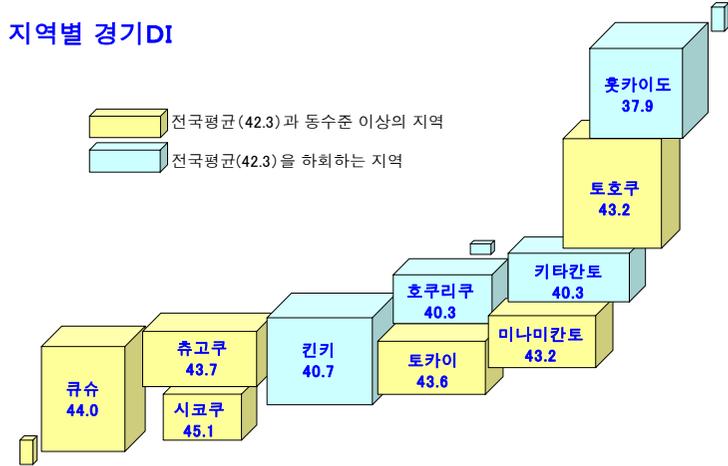
· 「**시코쿠**」(45.1)…동 1.6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 공공공사 침체의 영향을 받아 크게 하락한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를 포함한 『제조』(2.9포인트 감소) 이외에 난동이나 가격경쟁 격화의 영향을 받은 『소매』(2.9포인트 감소), 소비침체의 영향을 받은 오락 서비스 등의 『서비스』(1.8포인트 감소)가 크게 악화. 전국 10개 지역에서 7개월 연속 정상을 차지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경기의 정체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홋카이도**」(37.9)…동 1.1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작년부터 이번 달 상순까지 이어진 적은 강설량으로 건설공사 등이 침체된 영향을 받은 『건설』이 2.8포인트 감소한 37.0이 되어 10개 지역 중 최대의 하락폭으로 2013년 1월 이래의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기대되었던 봄 철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확대로 경기를 상승시킬 힘은 없었으며 곳곳한 절약지향에 의한 소비심리의 저하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체감경기를 저하시켜 5개월 연속으로 40을 하회하였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5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전월비
홋카이도	39.9	40.0	40.8	41.6	40.9	41.8	41.8	41.8	39.3	39.8	39.4	39.0	37.9	▲ 1.1
도호쿠	46.0	46.5	46.0	44.9	45.0	46.3	46.1	45.9	45.8	45.9	45.6	43.9	43.2	▲ 0.7
기타칸토	45.3	46.2	45.4	45.2	44.8	45.0	45.2	42.6	43.3	43.8	43.0	41.1	40.3	▲ 0.8
미나미칸토	46.0	46.8	46.2	46.5	46.1	46.8	46.1	45.4	45.8	45.8	45.8	44.6	43.2	▲ 1.4
호쿠리쿠	44.6	44.4	44.4	44.8	43.8	44.3	44.6	44.2	43.9	43.9	43.8	41.1	40.3	▲ 0.8
도카이	46.3	46.4	45.6	46.5	45.3	46.9	46.5	46.0	46.0	45.9	46.4	45.4	43.6	▲ 1.8
킨키	43.2	44.5	43.7	43.4	42.6	43.2	43.1	42.7	42.6	42.3	42.5	41.7	40.7	▲ 1.0
츄고쿠	44.4	45.5	45.4	45.6	44.8	45.5	44.9	45.0	45.6	45.8	45.8	44.8	43.7	▲ 1.1
시코쿠	45.5	46.6	47.7	46.9	46.3	45.6	47.7	46.5	47.3	48.3	47.5	46.7	45.1	▲ 1.6
큐슈	46.6	47.2	46.2	45.6	44.3	44.9	44.5	45.7	46.6	46.0	45.6	44.8	44.0	▲ 0.8
격차	6.7	7.2	6.9	5.3	5.4	5.1	5.9	4.7	8.0	8.5	8.1	7.7	7.2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의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의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